

# 「로HING야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 UN 인권이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신송학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방글라데시에 현지조사를 다녀왔다. 본 현지 조사 사업은 로HING야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지 조사 계획과 조사 내용 및 결과, 한계와 활용 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 1. 조사 계획

본 조사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약 백만명의 로HING야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을 세우고 방글라데시에 방문하고자 하였다. 방글라데시에 방문하려면 리서치 비자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비자는 필자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글라데시 세계식량기구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필자의 필드 방문을 허가해준 사단법인 아디에서 5월에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필자 또한 그 일정에 맞추어 함께 난민 캠프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 2. 조사 내용 및 결과

로HING야 난민 캠프는 201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되었다. 2017년 대규모 유입 이후 벌써 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난민 캠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난민들의 고향인 미얀마 라카인주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캠프 내 치안도 함께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는 로HING야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을 듣기 위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HING야 난민 캠프로 향했다.

난민 캠프에 들어가려면 먼저 리서치 비자가 필요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현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 초청장은 필자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WFP 방글라데시에서 인턴을 하며 알게 된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의 후마윤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리서치 비자를 해결한 후에는 RRRC(The

Office of Refugee Relief and Repatriation Commissioner)이라는 현지에 도착하여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으로부터 캠프 패스를 받아야 했다. 필자가 2022년 자원 활동했던 사단법인 아디를 통해 캠프 패스를 받고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1명의 로힝야 여성 난민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사진>



난민 캠프

산티카나 앞에서

산티카나 내 인터뷰 장소

<표1> 활동 내용

날짜	장소	목적	비고
5월 2일	다카대학교	후마윤 교수 내방	
5월 2일	다카 시내	번역자 1차 미팅	
5월 3일	다카 시내	번역자 2차 미팅	
5월 4일	콕스바자르	아디 협력 NGO 방문	
5월 6일	난민 캠프	인터뷰	R1, R2
5월 7일	난민 캠프	인터뷰	R3, R4, R5
5월 8일	난민 캠프	인터뷰	R6, R7
5월 9일	난민 캠프	참여관찰	
5월 14일	난민 캠프	인터뷰	R8, R5
5월 15일	난민 캠프	인터뷰	R9
5월 19일	난민 캠프	인터뷰	R10, R11
5월 22일	다카 시내	번역자 3차 미팅	

먼저 필자는 방글라데시 다카에 도착한 후, 다카대학교 후마윤 교수를 내방하여 전반적인 캠프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필자의 IRB 관련 서류의 로힝야어 번역을 하였던 방글라데시인 번역자를 만나서 함께 현재 로힝야족의 상황과 방글라데시에서 바라보는 로힝야족에 대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미팅에서 얻은 정보는 논문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필수적이었다.

5월 4일에는 콕스바자르로 이동하여 사단법인 아디의 직원들과 만났고, 아디와 협력하고 있는 NGO를 방문하여 현재 콕스바자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5월 5일에는 RRRC에 방문하여 난민 패스를 신청하였다. 현지 상황이 유동적이라 최악의 경우 캠프 패스가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다행히 신청한대로 캠프 패스를 발급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드디어 5월 6일, 로HING야 난민 캠프에 출입하였다. 필자가 인터뷰한 곳은 캠프 14로 콕스바자르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캠프에 가까울수록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다. 하루는 1시간 반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아침 9시 반쯤 캠프14에 위치한 산티카나에 도착하였다. WFP에서 일할 때 한번 난민 캠프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와본 것은 처음이었다. 상하수도 시설이 따로 있지 않아 더러운 물이 길 옆으로 흘렀고, 그곳에서 닭과 병아리들이 지나다녔다. 좁고 냄새나는 캠프의 골목에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들은 우리를 보고 맑은 눈으로 “헬로, 하이”라고 크게 외쳤다. 순진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다.

5월 6일부터 19일까지 필자는 11명의 로HING야 여성 난민을 만났다. 필자의 논문은 UN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서 재현하는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과 여성 난민이 말하는 박해 경험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여성 난민의 박해 경험은 그들의 경험을 난민들의 삶의 맥락 속에 놓지 않아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삶에서 탈구시킨다. 이들의 경험은 제3세계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으로 공여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UN 인권이사회의 내러티브를 비판하고 실제로 이들 여성 난민의 삶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박해 경험을 맥락화, 역사화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에서 필자는 이들의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묻고 최대한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들의 삶의 처음의 기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하루를 최대한 묘사해달라고 하였다. 그 묘사 속에서 연구참여자가 어떻게 유년기를 보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후 라카인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며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최대한 상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2017년 박해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서 어떻게 자신의 집을 떠나 이곳 방글라데시엔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후 현재 난민 캠프에서 일상은 어떻게 보내는지를 물었다. 각 인터뷰는 통역자 1명을 대동하여 난민 1명과 본 연구자 1명의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한명 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여러 난민의 입말 속에서 이들이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박해에 전략적으로 대처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여성들은 남성들이 도망간 마

을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집에 남아 한 집에 모여 군인이 올 때를 대비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여성은 군인들이 닥쳐올 때 고춧가루로 총을 제작하여 군인들을 물리친 경험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난민의 행위주체성(agency)이 드러나는 경험은 피해자성(victimhood)에 위배되므로 생략된다. 여성 난민의 피해자성은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여성의 성적 박해가 강조되는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힝야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담론을 탈피하여 로힝야 난민 여성의 성적 박해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은 박해 경험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2017년 박해 경험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만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는 다시 콕스바자르에서 다카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고, 번역자와 다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번역자는 방글라데시인으로 로힝야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처럼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 3. 한계 및 활용 계획

필자는 여성으로서의 젠더적 지위를 활용하여 현지 로힝야 난민 여성들을 인터뷰 할 수 있었으나, 이들이 겪은 심각한 성적 박해의 내용까지 자세히 듣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필자와 이들은 해당 인터뷰로 처음 만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충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세히 말해주었고, 타인이 겪은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토대로 필자는 7월 중순까지 전사를 마치고 2024년 2학기에 논문 디펜스를 하여 2025년 2월에 석사논문으로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감사를 표한다.